



## “피폭방사선량 기록” 영구보존 기틀마련

협회는 과학기술처로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보고” 기록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협회에 보관하고 있는 기록서류의 분량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영구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1차 전산화 작업으로는 지난 '96년도 2월부터 올 '97년도 4월까지 1년2개월간에 걸쳐 피폭방사선량 기록서류의 전체적인 재분류, 정리, 전산입력 및 검색작업을 완료하였고, 2차적으로 5월부터는 피폭방사선량 기록서류를 마이크로필름화 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1차 전산화 작업대상이된 기록서류는 협회에 보관되어 온 최초의 1997년도 기록부터 현재에 이르는 것으로 약 7만매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물론 이 작업전에도 대부분은 분류관리 및 전산화가 되어있으나 과거의 일부기록이 미 검증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작업을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작업에 있어서 기록의 대부분이 피폭기록 관리가 체계화 되기 이전에 작성된 기록인 관계로 매우 세밀한 확인이 요구되었다. 특히 초기단계의 기록은 기록 자체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 전산화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였으나 소속

기관에 일일이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취하여 기록서류의 전산입력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이 자료는 장래에 방사선장해에 대한 중요한 판단 지표가 되므로 안전한 보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협회는 분실 또는 화재 등에 따른 자료의 소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달 5월부터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기록서류” 전량을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마이크로필름은 크기가 매우 작고 보관이 용이하며, 특히 영구보존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 필름은 2분이 제작되며 1본은 정부문서보관소 또는 필름보존 전문기관에 보관하고 1본은 협회에서 보관하여 분산 관리할 예정이다.

이는 「피폭방사선량 기록의 보존」 및 「기록의 전산화」라는 의미에서 협회자체로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뜻있는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선량기록은 입체적인 관리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것은 정부의 방사선 방어체계 제도연구에 신뢰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될 것이고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방사선피폭현황 파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